

금동신발로 살펴보는 백제의 장례풍습

강원표, 106호 백제실 18:00~18:30

5~6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금동으로 신발을 만드는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제작방법과 장식방법, 형태와 문양도안은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뒤꿈치 부분이 평평하며 앞쪽은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의 바닥판만 있고 바닥면을 수십 개의 스파이크 못으로 장식했습니다.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수장급 묘에서 주로 출토되며 바닥판+앞판+뒤판을 결합해 제작했습니다. 바닥판 형태는 고구려와 비슷하지만 스파이크 못이 없습니다. 발등은 무늬가 없거나凸자형 무늬를 새기며 달개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전라도까지 백제 전 영역의 수장급 묘에서 20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닥판+우판+좌판을 결합해 제작하며, 바닥판은 앞뒤가 모두 둥근 형태이며 스파이크 못으로 장식했습니다. 용·봉황·기린·가릉빈가·서수·연화·귀갑·凸자형 등 여러 가지 길상무늬와 달개로 장식하여 삼국 중 가장 화려합니다.

금동신발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약하며, 대부분 무덤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장례에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공예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저승으로 이끌어줄 신발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왕이나 왕족이 죽으면 최고로 화려하게 장식한 신발을 만들어 신겨주었습니다. 혹은 시신을 안치할 때 무덤 속 별도 공간에 부장품처럼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 금동신발은 당시 최고의 기술이 발휘된 공예품이기 때문에 각국의 왕실이 있는 도읍지가 유행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지방에서 발견되는 금동신발은 지방의 유력자가 장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왕실에서 내려 보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대의 장례는 망자와 그 계승자의 위세를 드러내는 큰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에서 왕실의 장례용품을 공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금동신발은 삼국이 영역을 확장하고 지방의 유력세력을 중앙의 지배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매개물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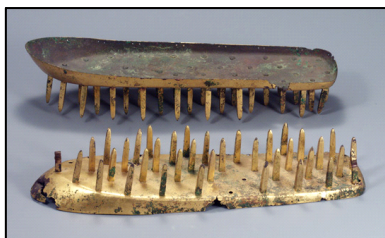


그림1. 고구려 금동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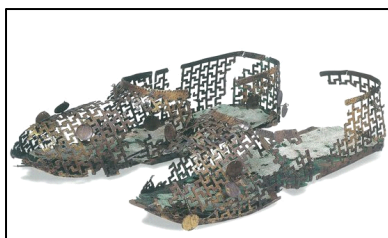


그림2. 신라 금동신발(황남대총)



그림3. 백제 금동신발(복원품)

제74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9월 6일)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 토우장식 토기에 담긴 신라 사회

최은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무덤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토기는 죽은 이의 장례의식에 사용된 제의용 그릇입니다. 토우는 5cm 내외의 아주 작은 크기로, 긴목 항아리의 목과 어깨, 원통모양 그릇 받침의 몸통, 굽다리 접시의 뚜껑 위 등 그릇의 다양한 부위에 부착되어 장식 효과를 냅니다. 주로 5~6세기경 신라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토우장식 토기는 당시 신라의 사회문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경주 황남동 유적은 가장 많은 토우가 발견된 유적으로,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경주역 확장공사 중에 발견되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긴급으로 수습,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토기는 파편으로 발견되었고, 토우는 토기와 떨어진 채로 수습되었습니다. 경주 황남동 유적의 토우는 그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표현된 대상의 종류와 조합이 매우 다양하며 표현하는 방식 또한 사실적이고 섬세합니다. 인물·동물·사물모양의 토우들은 함께 어울려 당시 신라인들의 삶 속 여러 장면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물모양 토우 외에 동물모양의 토우는 당시 신라의 동물상을 복원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멸종위기로 보기 어려운 호랑이, 물개, 여우 등을 표현한 토우도 많습니다. 동물모양 토우는 표현된 동물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장수, 영혼의 전달자, 영생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토우장식 토기는 모두 죽은 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산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1. 사냥하는 장면을 표현한 토우장식 토기



그림2. 뱀과 개구리를 표현한 토우장식 토기



제74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9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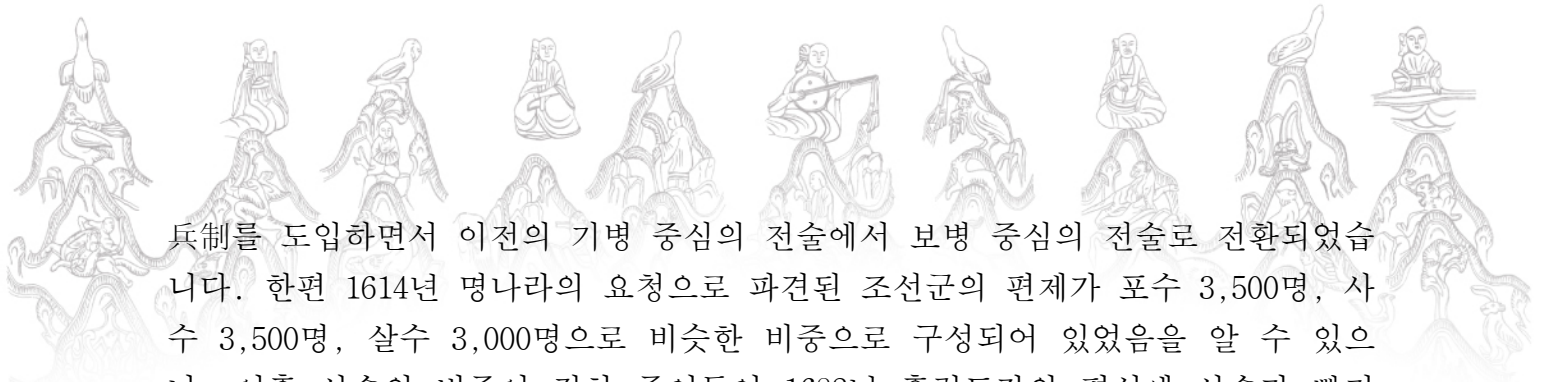
전쟁의 양상을 바꾼 화약무기

박경도, 118호 조선Ⅱ실 19:00~19:30

유럽에서 16~18세기는 새로운 화약무기가 등장하여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가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소총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소총은 장전과 재장전의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명중률도 낮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일본은 유럽에서 전해진 소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1592~1598)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조총鳥銃의 성능을 실감한 조선은 왜군의 조총을 도입하였고, 이후 빠르게 군의 주력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약무기의 등장과 도입은 무기와 군사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17~18세기에 조선에서도 도검刀劍이나 창, 활(弓矢) 등 전통적인 무기로부터 화약무기 중심으로 무기체계가 바뀌고, 보병이 기병을 대신하여 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총병은 총구로 장약裝藥과 탄환을 장전하는 머스킷(musket)이라는 전장식前裝式 소총을 사용하였고, 최후의 근접전에 대비하여 보병용 칼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머스킷은 총열에 강선이 없는 활강식이며, 처음에는 불을 붙인 심지를 용두龍頭에 고정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용두가 내려와 약실의 화약에 불을 붙여 발사되는 화승식火繩式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사용하기 어렵고 심지에 붙은 불빛 때문에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방아쇠를 당기면 화승 대신 부싯돌이 장착된 공이가 앞으로 내려와 부싯돌이 약실을 덮고 있던 강철판을 치면서 생기는 불꽃을 이용해 점화하는 부싯돌식(燧石式, flintlock)이 등장하였습니다. 부싯돌식은 화승식과 달리 날씨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더 가볍고 다루기 편하게 개량되어 재장전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한편 조선의 화약무기는 총통 등 대형무기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상대하며 조총의 위력을 실감하고 개인화기인 조총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도입된 조총은 화승식이었으며, 조선의 조총은 총신이 길어 명중률과 관통력이 높았고,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사용법을 익히고 숙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술체계에서도 조총병인 포수砲手, 활을 쏘는 사수射手, 창검 등 근접전 병기를 다루는 살수殺手로 구성된 삼수병제三手



兵制를 도입하면서 이전의 기병 중심의 전술에서 보병 중심의 전술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1614년 명나라의 요청으로 파견된 조선군의 편제가 포수 3,500명, 사수 3,500명, 살수 3,000명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후 사수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1682년 훈련도감의 편성에 사수가 빠져 있는 점은 결국 군의 주력이 조총을 사용하는 포수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17세기 이후 조선과 유럽에서는 화약무기, 특히 개인화기인 소총이 등장하면서 주력무기가 되었고, 이는 이전 시기 기병 중심의 전술을 보병 중심의 전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장전을 준비하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병을 3~5열로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사격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후 화약무기의 발달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이 자연스럽게 무기가 개량되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소총을 비롯한 대포 등 화약무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반면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에는 명명과 청淸의 요청으로 두 차례 파병한 사례가 있지만 19세기 말까지 이렇다 할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럽에 비해 무기의 발전이 뒤쳐진 원인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조선군이 사용하던 조총보다 발전한 부싯돌식 소총을 몇 차례 입수하고도 이를 참고하여 조총을 개량하지 않은 점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74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9월 6일)

손기정 기증 그리스 투구

김혜경, 209호 기증 I 실 19:00~19:30

마라톤 영웅 손기정

손기정(孫基禎, 1912~2002) 선생은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주의에 침탈당한 이후인 1912년 8월 29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여 어렵게 초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달리기와 대한 열정만으로 훈련하여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을 세우면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1935년 일본 선수권대회 및 베를린올림픽대회 최종 예선에서 우승하고 이듬해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함께 출전한 남승룡 선수는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상대에서 이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메달을 따낸 기쁨의 순간도 잠시, 메달수여식에서 두 선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는 일본의 국가가 연주되고 계양대에 일본 국기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과 동메달리스트 남승룡의 소식은 곧 신문 기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두 선수의 시상식 사진에는 일본 국기가 없었습니다. 흐릿한 전송사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 검열관은 이를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8월 25일자 석간에는 일본 국기를 지운 선명한 사진이 다시 실렸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여 언론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신문은 강제 폐간되거나 휴간해야 했습니다.

손기정과 그리스 투구

그리스 정부는 아테네 브라드니 신문사를 통해 청동 투구를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투구는 손기정 선수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베를린의 샤를로텐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오다가 198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비로소 손기정 선수에게 헌정되었고, 이듬해 정부는 50년 만에 돌아온 투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투구를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투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손기정 선생은 199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청동 투구를 기증했습니다.